

Sumitomo, 미국 TPE 시장 진출

Conyers에 1000만파운드 플랜트 건설 예정 ... 2004년 하반기 가동

Sumitomo Chemical이 조지아주 Conyers에 TPE(Thermoplastic Olefin Elastomer) 1000만파운드 플랜트를 건설하기로 결정해 빠르면 2004년 하반기 가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Sumitomo의 플랜트는 TPV(Thermoplastic Vulcanizates), Thermoset Rubber 대체재로 개발된 Thermoset Rubber 및 Plastic Matrix의 Crosslinked Olefin Elastomer 컴파운드, Non-Crosslinked TPO(Thermoplastic Polyolefin)을 비롯해 자동차 바디 실링재, 에어백 커버 Resin 및 인테리어 시트 Resin 등을 생산하게 된다.

Sumitomo는 일본 Chiba에 TPE 1만5000톤 플랜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에도 Chevron Phillips Chemical과의 50대50 합작기업인 Phillips-Sumika Polypropylene 소유의 PP(Polypropylene) 플랜트를 보유하고 있어 TPE 플랜트에 원료를 공급하고 있다.

Sumitomo는 TPE를 포함한 고급 Polymer 제품의 개발 및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Conyers에 TPE 플랜트를 건설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TPE 수요는 고무, Thermoplastic 및 금속 대체경향과 표면감이 부드러운 소재에 대한 수요증가 및 자동차, 스포츠 용품 및 아스팔트 분야의 성장으로 2007년 15억파운드(30억달러)에 달해 연평균 5.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TPV 수요는 이미 성숙기에 진입한 TPO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할 전망으로 Sumitomo는 최근 2년 동안 Solvay 및 Zeon Chemicals에 이어 세 번째로 미국 TPV 시장에 새로 진출하게 됐다.

<화학저널 2004/05/28>